

歙齋 卞鍾運의 華夷觀과 자국에 대한 인식

김홍매*

1. 서론
2. 華, 夷의 구분과 小中華로서의 조선
 - 1) 文明에 대한 자부
 - 2) 節義에 대한 긍정
 - 3) 풍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
3. 夷狄에 대한 불신과 경계
 - 1) 지나친 예우의 경계
 - 2) 軍事와 武備의 강조
4. 결론

<국문초록>

변중운(1790~1866)은 조선후기 저명한 역관 출신 문인으로, 일찍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. 변중운은 역관으로서는 드물게 많은 산문을 남겼는데, 그의 작품을 통해 조선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외교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.

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변중운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화(華)와 이(夷)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. 변중운은 청나라가 비록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화의 문명은 이미 조선으로 넘어 왔다고 생각했다. 조선에 대해서는 ‘해가 먼저 비추고 문명의 기운이 충만한 나라’라고 하였으며 조선이 중화의 문명을 실현하였기에 조선은 곧 중국, 즉 小中華이고, 조선인은 곧 중국인이라고 하였다. 또 정몽주와 두문동 72현을 비롯한 고

* 대전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.